

“안전 전복 조성”

김승일 행정부지사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
민관합동 안전점검서

전북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의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은 도와 전주시 합동으로 진행된 가운데, 극장 내 시설물에 대해 분야별로 합동점검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했다.

김승일 부지사는 소방·건축·전기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극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극장 관계자 및 극장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극장 내·외부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기간보다 2주간 연장이 된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부단체장이 직접 일선 현장의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점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진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진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 내재되어있는 각종 위험요소도 대진단 기간에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사전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 안전하고 건강한 전복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의원 수 줄어든 전주병 선거구

“확정위 결정 납득할 수 없다”

“3명 줄인 이유 명확히 밝혀야” 강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불합리한 의원정수 조정 기준의 근거를 밝히고 회의록과 녹취파일을 공개하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을 놓고 의원수가 줄어든 선거구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서도의원 및 당원 등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구획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주갑 선거구와 전주를 선거구는 각각 1명과 2명을 증원하고, 병 선거구는 3명을 줄이는 불합리한 정수 조정을 결정한 데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인구수를 비교해도 병 선거구의 인구수가 갑과 을보다 많은 상황에서 3명이나 줄인다면 그 피해는 병 선거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이러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의원을 여론 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한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행태이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의원정수 조정을 이토록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초 전주 선거구를 4석 늘리고 군산과 순창, 김제, 부안 등 4개 시군에서 1석씩 줄이기로 잠정 확정했다. 그러나 며칠 뒤 이 확정안을 폐기하고 번복된 안을 내놴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녹취파일을 공개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을 의결한 전북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GM군산공장 가동중단 노사민정협의회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한국GM군산공장 가동중단 '군산시 고용위기 지정' 신청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북경제 살리려면 GM 군산공장 가동돼야”

문동신 군산시장 등 국회·기재부에 범도민 서명부 전달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200만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범도민 서명부가 5개 정당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에 전달됐다.

15일 문동신 군산시장과 김관영 국회의원, 박정희 의장, GM노조군산지회 이범로 자문위원이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찾아 범도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오전 서명부 전달 일행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위실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

철 원내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서명부를 전달했다.

또 오후에는 민주평화당 조배숙대표, 정의당 GM TF팀 김용신 정책위원장,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했다.

서명부를 전달한 문시장 일행은 각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지역현황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해결방안 마련 촉구에 이어 정치권의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각

의 정당 원내 대표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로부터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어려움을 같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전라북도와 군산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우려됨에 따라 정상가동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범도민 서명부를 지난 9일 한국GM 본사와 청와대에 이어 13일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운영지원 등 3개 분과를 두기로 했다. 의제 분과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소통·홍보분과장은 윤영찬 소통수석, 운영지원분과장은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맡았다.

준비위원회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는 주 1회 내지는 격주 1회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분과장 중심의 실무회의는 주 3~4회 개최하기로 했다. 첫 전체회의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다.

김 대변인은 “준비위는 정부와 청와대를 융합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며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조직을 단순화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또한 오는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딸기 따기 체험을 운영할 예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나 모임 등 체험 학습을 원할 경우 마을 전화(063-221-4161)로 문의하면 된다.

학전정보화마을 관계자는 “주말농장은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가져가는 기회를 통해 농사에 대한 이해와 일상속의 힐링, 어린이들에게는 자연 학습교실의 장으로 가족모두에게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학전정보화마을, 내달 7일

주말농장 체험 개장

전주 학전정보화마을(이하 학전마을, 위원장 김종복)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취미활동이 가능한 주말농장 체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hj.invl.org)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장식은 오는 4월 7일 열릴 예정이다.

학전마을은 2004년부터 주말농장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의 주말농장 분양 가격은 1구좌당 5만원(23㎡기준)이다.

매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주말농장 체험상품은 봄부터 계절별로 분양자가 원하는 작물의 씨앗을 준비하면 경작 및 관리를 돕고 재배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준다. 재배가능 작물로는 고추, 가지, 옥수수, 시금치, 오이, 배추, 무, 파, 부추, 상추,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으로 다양하게 가능하다.

또한 오는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딸기 따기 체험을 운영할 예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나 모임 등 체험 학습을 원할 경우 마을 전화(063-221-4161)로 문의하면 된다.

학전정보화마을 관계자는 “주말농장은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가져가는 기회를 통해 농사에 대한 이해와 일상속의 힐링, 어린이들에게는 자연 학습교실의 장으로 가족모두에게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구성 완료

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총괄간사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담당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으로는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과 정하성 정책실장이, 정부 대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안보실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배석자로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준비위 산하에 ▲의제 ▲소통·홍보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진안군 고시 제 2018-247호

진안 마이산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안) 공고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306-29번지 일원에 신규마을조성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 101조 및 제10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진안 마이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287-1번지 일원
-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면 적 : A=2만5,512㎡
- 사업비 : 40억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사업시행자 : 진안군수
-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2. 사업 주요내용

- 단지조성(30호), 진입도로 및 단지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3. 마을정비구역 지정(안) 관련도서 열람

- 열람기간 : 2018. 3. 13.(화) ~ 2018. 3. 27.(화)
- 열람장소 : 진안군 건설교통과,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 마이산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안)은 진안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상기 공고 및 열람된 지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종료일까지 진안군 건설교통과 농촌협력팀(063-430-2483)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3일 진 안 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